

영어로 본 금강경 머리에 '쑥쑥'

■저자 인터뷰 이대성 씨



영어와 <금강경>. 언뜻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단어들이다. 하지만 현직 영어교사인 이대성 교수를 대하고 59·사친가 <금강경>을 영어로 풀어 쓴 <영어로 생각하는 금강경>을 읽어보면 두 단어가 어떻게 어우러져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영어로 풀이한 <금강경>은 한문을 다시 우리말로 번역한 것보다 표현이 더 구체적이고 뜻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책 제목을 ‘영어로 읽는’이 아닌 ‘영어로 생각하는’으로 붙인 것도 각 구절을 음미하며 그 속에 담긴 뜻을 좀 더 새겨 읽어보는 뜻입니다.”

책에서는 영어 원문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해석과 어구 풀이, 단어와 속어 해석 등을 차례로 담고 있다. 학생들이라면 경전을 읽으며 영어공부를 할 수 있는 교재로도 사용할 수 있다. 책 뒤편에는 독송을 할 수 있는 한문과 한글 <금강경>과 ‘보리달마의 이입사행론’, ‘인도불교의 선정설’ 등도 덧붙였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갈등과 분열이 지속되는 것은 청정심이 결여된 탓”이라는 이 박사는 “<금강경>을 읽음으로써 너와 나의 구분이 없는 청정심을 갖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책을 펴냈다”고 말한다. 가산불교문화원장 지관 스님은 추천사에서 “영역본과 한역본 <금강경>을 유려한 한글로 번역하고 해설까지 곁들인 것은 물론 독송용 한문과 한글을 마련해 놓음으로써 수행에 매우 유용한 책”이라고 평가했다.

조계종 원로의원이자 합법사 주지인 상원 스님의 속가 동생이기도 한 지은이는 공부를 하면서 도움을 받았던 것을 조금이나마 갚기 위해서 책의 판권을 상원 스님께 드렸다. 그러나 상원 스님은 책을 출간해 판매하지 않고 불자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고 있다.

“모든 경전 중에서 최상의 경전인 <금강경>을 읽음으로써 부처님의 ‘더불어 완전한 지혜’를 증득하는 동시에 ‘큰 사랑의 길’을 실천해 우리 모두 행복한 부처님의 세계를 성취하기 바랍니다.” (062.375-7600) 여수령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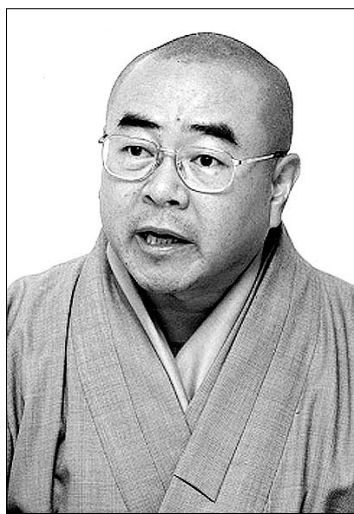
영어로 생각하는 금강경 이대성 지음 | 합법출판사

선어록의 진수 ‘무문관’ 뿌리를 캐다

‘선어록 총서’를 펴내고 있는 한국선문화연구원장 성본 스님(동국대 선학과·사진이 지난해 <속조단경>과 <임제록>에 이어 선어록의 진수로 평가받는 <무문관>의 해설서를 펴냈다. (한국선문화연구원, 2만원) <무문관>은 중국 송대의 무문해(1183-1269) 선사가 1700여 척(則)의 공안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48개의 공안을 가려 화두 참구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 책이다.

“불교 경전은 거의 부처님과 제자들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선어록 역시 일종의 대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해독 불가능한 문자’가 아닌 대화를 통해 가르침을 전달하는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어록에서 구체적인 불법의 수행방향과 방법을 체계화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러한 선어록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생각에 ‘선어록 총서’를 펴내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스님은 <마조어록>과 <황백어록> 등 30여 권의 선어록 해설서를 펴낼 예정이다. “선어록 해설의 관건은 글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핵심을 꿰뚫는 안목과 용어해설, 선종의 역사에 대한 이해에 있다”는 스님은 ‘선어록 총서’를 펴내는데 있어 주해(註解)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단순히 원문을 번역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뜻의 ‘뿌리’까지 밝혀내는 작업을 하기 위해, 스님이 직접 용어와 개념 등을 정리해 놓은 카드 5만장을 토대로 주해를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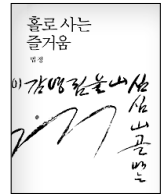
처음 접해도 어렵지 않게 원문 번역에 머물지 않고 해설·역주 상세히 기록

고 있다. 또한 책의 원고를 토대로 선문화연구원 회원들과 세 번에 걸친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한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무문관>을 처음 접하는 사람도 해설과 역주를 자세히 읽는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뜻을 헤아릴 수 있다.

“간화선이란 당대 선승들에 의해 이루어진 선문단(대화)을 읽고 일상생활 속에서 불법의 지혜를 체득하는 수행입니다. 법을 토대로 수행하고 공부하는 것이죠.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들은 바는 많은데 이를 체계화하지 못합니다. 구슬은 많은데 꿰실 이 없는 것이죠. 경전은 바로 이 불법의 씨줄과 날줄을 형성하는 것으로, 경전을 읽음으로써 불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바탕을 닦을 수 있습니다.”

스님은 깨달음의 기준은 ‘사람’이 아닌 ‘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법을 체득하기 위해 경전을 읽으며 스스로 사유할 때 비로소 참된 깨달음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스님은 수행자 스스로 ‘무엇 때문에 수행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한다. 교단의 양적 팽창만이 불법 증흥이 아니라 올바른 불법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불교 본연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한국선문화연구원 <무문관>을 교재로 6월 19일부터 8월 2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연구원 법당에서 특강을 연다. 참가비 5만원. (02)765-6539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홀로 사는 즐거움 법정 스님 지음 | 샘터 | 9천8백원

홀로 있음으로 함께 있는 스님

“우리가 불행한 것은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따뜻한 가슴을 잃어버린 때문이다. 따뜻한 가슴을 잃지 않으려면 이웃들과 정을 나누어야 한다. ... 우리는 지금 죽지 않고 살아 있다는 사실에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한다.” (‘당신은 행복한가’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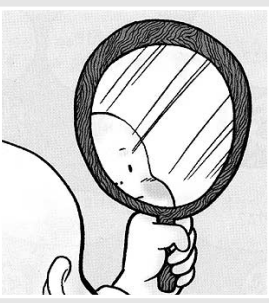
<무소유>의 저자 법정 스님이 <오두막 편지> 이후 5년 만에 산문집 <홀로 사는 즐거움>을 펴냈다. 법정 스님은 올해 초 ‘맑고 향기롭게’ 및 서울 성북동 길상사 회주에서 불어나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강원도 산속 오두막에서 ‘침묵의 수행’을 하고 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이 말하는 ‘홀로 있다’는 의미는 외떨어져 혼자 사는 단순한 의미로만 읽히지는 않는다. 홀로 있음의 진정한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스님은 명사가 토마스 머튼의 ‘홀로 있음수록 함께 있다’는 말을 인용한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그는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없다. 홀로 있다는 것은 어디에도 물들지 않고 순수하며 자유롭고 부분이 아니라, 전체로서 당당하게 있음이다.”

책에 담긴 글을 2001년부터 매월 ‘맑고 향기롭게’ 회지에 쓴 글을 모은 것이다. 가을물을 길어 밥을 하고 장작을 때 팔감을 만들고, 달빛이 방 안까지 훑히 스며들어 잠을 깨기도 하는 스님의 일상을 볼 수 있다.

본지 연재 명상만화



지진 물고기 내 안에... 호시우보 지음 대원문화사 | 9천원

“저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영화감독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다 알게 됐습니다. 단 한 번도 ‘나’ 자신이 되는 걸 원한 적 없다는 사실을.” (‘참나’ 1)

지난해 본지에 연재한 ‘아함경에서 건진 지혜’ 중 일부를 엮은 명상만화 <지진 물고기 내 안에 쉬어 가라>가 나왔다. 책을 엮은 이는 ‘호시우보(虎視牛步)’, ‘호랑이의 시선으로 보고, 소의 걸음으로 걷다’라는 뜻으로 한경우, 한정옥 두 만화가의 필명이다.

책에는 중저승 우보가 진정한 자신의 모습, ‘참나’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그림을 사랑, 참나, 행복, 지금 여기, 삶 등 5개의 장으로 나누어 실었다. 지은이는 “지쳐 쉬어 가고 싶을 때 이 책이 시원한 물 한 모금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교법사가 쓴 신행 길잡이

부처님 만남은 기쁨이여라 고우익·현익재 지음 | 무량수 | 1만원



현익재 금강중학교 교법사가 포교 일선에서 함께 해온 고우익 교법사와 함께 <부처님 만남은 기쁨이여라>를 펴냈다. <불자신행의 길잡이>의 2권에 해당되는 이 책은 ‘크나큰 가르침의 문을 열며’ ‘참나를 찾아서’ ‘부처님 따르는 마음’ 등 6장으로 나눠 부분마다 불교교리, 불자상식, 예불문, 기도문, 참회 발원, 일상기도 발원, 경조 발원, 평생의례 발원 등의 발원문과 가정 예불, 가정 기도, 특별기도 의례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대불련 부산지부장과 전국 교법사단 부단장 등을 역임하고 있는 지은이는 그동안 <부산지 대학생불교연합회 10년사> <부산불교안내 1, 2호> <부산불교총람> 등을 펴내기도 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무량의경 해설서 나와

무량의경 해설 1, 2 김현두 지음 | 도서출판 아나 | 각각 1만8천원



부산 아나법회연수원에서 불교강의를 하고 있는 김현두 씨가 펴낸 <무량의경해설>은 <무량의경>을 번역하고 상세한 설명을 곁들인 책이다. 지은이는 책에서 기존의 법화3부경에 <반야심경>을 더해 ‘법화4부경’으로 불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1권 1장 ‘법화4부경에 대한 고찰’에서는 <반야심경>과 <무량의경>의 원문과 뜻을 비교하고 2장 ‘무량의경’에서는 <무량의경>의 개요와 대의를 설명한다. 지은이는 앞으로 <묘법연화경>과 <관보현보살행법경> 등의 해설서도 펴낼 예정이다. (051)723-2261

금주의 베스트북 10 책방 역시 아날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가장 행복한 공부	정화 스님	시공사
2	홀로 사는 즐거움	법정 스님	샘터
3	하룻밤에 읽는 불교	소운 스님	켄달하우스출판
4	마음 부처가 사는 나라	정화 스님	이튼아침
5	청정도론	붓고고사	초기불전연구원
6	불교의 수행법과 나의 체험	우룡 스님	호림
7	스님이야기	지록 스님의	여시야
8	백일법문	성철 스님	장경각
9	불교가 좋다	기요이 하야오	동아시야
10	육조단경	정화 스님	광문출판사

도서 안내: (02)737-0695

禪으로 깨우치는 반야심경

일시: 매월 첫째주 일요일 오전 11시-12시
 방문: 대원 문체원 선사님(전강 선사님 인가제자)
 www.zenparadise.com
 ☎ 02-522-0122, 011-785-0122

법요집·기초교리 집과도 재발간

청담교육 매체가 다양한 오늘날에도 대중의 일체감과 효율성을 높이는 교육보조재로는 질과 양을 겸비한 인쇄적 교구 방법이 좋습니다. 특히 청소년 여흥불교학교 담임법사님들께서 교재로 활용 하시면 좋은 결실을 거두실 것입니다. 군법당, 경철사 교도소 등 대중교리 교육이 필요한 곳에 법보시를 하고자 원하시는 불자님들께서 전화주시면 택배로 우송해 드립니다.

법요집

- 삼귀의
- 참언
- 찬양합니다
- 발원 및 축원
- 반야심경
- 사홍서원
- 입정
- 선회가
- 청법가
- 기타천불가
- 법문

기초교리

1. 불교란?
2. 부처란?
3. 대승과 소승의 차이
4. 사찰에서 쓰는 도구
5. 사찰경내 예법
6. 향장과 반배
7. 고두례
8. 예불문
9. 삼보
10. 삼귀의
11. 삼보인
12. 삼업
13. 삼학
14. 신도요계
15. 사성제
16. 사선법
17. 십이인연
18. 육바라밀
19. 팔정도
20. 보현삼매론

■ 기획: 예백불교문화원 ■ 제작: 불교포교자료원
 ■ 전화: 02-772-9052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지붕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테트경강판
 슬라브, 사찰, 교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011-379-0667
 강원도: 010-3044-9708
 경기도: 019-690-4018
 충청도: 011-327-7697
 경상도: 016-9294-8580
 전라도: 011-368-0667

조은칼라지붕공사

그대들이 진정 “불살생계(不殺生戒)”의 뜻을 아십니까?

아아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 아바로키테 스바라 보디사트바

벽관돈오(壁觀頓悟) 달마선사(達磨禪師)님의 송(頌)과 해동초조(海東初祖) 원효성사(元曉聖師)님의 소(疏)를 따라 살펴보는 이야기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사람의 수행인(修行人)임을 자처하는 저의 죄가 너무 크옵니다. 금과옥조(金科玉條)와도 같은 그 제1계 “불살생계(不殺生戒)”의 뜻 하나 제대로 올바르게 전파하지 못하는 이 무능력함. 여기 하 답답한 나머지,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 살기는 마찬가지로인 이 오욕막세 (五濁惡世)에 ...

“관세음보살”은 정녕 어떻게 하여 스스로 오안(五眼)과 삼덕(三德), 즉 반야(般若)·해탈(解脫) 법신(法身)을 구족(具足)하여 제도 하셨던가. 해동초조(海東初祖) 원효성사(元曉聖師)님의 소(疏)와 벽관돈오(壁觀頓悟) 달마선사(達磨禪師)님의 송(頌)을 빌어다가 다시금 현실에 사무쳐 되새겨 보는 것으로 감히 무상삼회의 서(序)로서 삼고자 합니다.

자영 편지/도서출판 회담/ 신국판 137쪽/값 10,000원

●보급처: 불교서적 총판 법우당 02)994-4437
 ●문의처: 043)851-1080, 팩스 043)853-8909

행복한 길로 초대합니다

연린선방 불교대학

반야심경을 알아차리고 채득하는 데에는 남부노소, 지식, 지혜, 지능은 무관합니다. 고민되는 삶에서 길을 찾아 오직 오묘한 믿음과 수련 수행으로 정신건강, 몸건강, 돈건강 찾아 행복하게 살게 하는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마하반야바라밀 황토법당 백마사 주지 정산, 법성, 법정

●반야심경 설법 특강 & 수행안내

차수	일시	대상
1차	7월 3일 오전 10시 ~ 4일, 5일 오후 3시	대학생
2차	7월 10일, 11일, 12일	대학생
3차	7월 18일, 19일, 20일	사부대중
4차	7월 24일, 25일, 26일	가족 & 일반
5차	7월 31일, 1일, 2일	선생님 & 일반
6차	8월 7일, 8일, 9일	가족 & 일반
7차	8월 14일, 15일, 16일	가족 & 일반
8차	8월 21일 오전 10시 ~ 22일, 23일 오후 3시	가족 & 일반 & 학생

※ 2박 3일 특강 수련수행정진에 동참하시어 큰 뜻 이루소서
 ◆참가비: 4만원(매회차 25명 - 공간간 도우미 4명 무료)
 ◆온라인: 농협 237075-52-065685 예금주: 백마사
 ◆준비물: 간편한 복장, 침구, 세면구, 필기구 지참
 ◆신청접수: 031)674-7188, 017-203-9400
 ◆교통안내: 영지IC ~ 20여분 / 일죽IC ~ 10여분 / 안성IC ~ 25여분 소요

황토로 지은 법당 백마사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울곡리 산 125번지